

בֵּית ספר (책의 집)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한동일 씀, 인티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36)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날과 그 시간’을 묵시문학 같은 복잡한 이론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개인 삶의 끝, 한 인간의 죽음의 순간으로 한정해보는다면 어떨까요? 종말의 시간은 인간이 체감할 수 없기에 오히려 이를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각자의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은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 날과 시간을 안다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비록 우리가 속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속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3)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여덟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2. 8월 오후 활동 안내**
 - 기쁨주일(3일): 찬양예배
 - 배움주일(10일): 쉬어갑니다.
- 3. 예배당 보수공사 안내:** 당회는 가을에 예배당 지붕을 보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예산(약 2,000만 원)과 안전한 공사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4. 여름휴가 기간 신앙 실천:** '인생 말씀' 찾기에 도전해보세요.
- 5. 교역자 휴가:** 이기도 목사님, 7일(목)-13일(수)
- 6.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나요? 그 구절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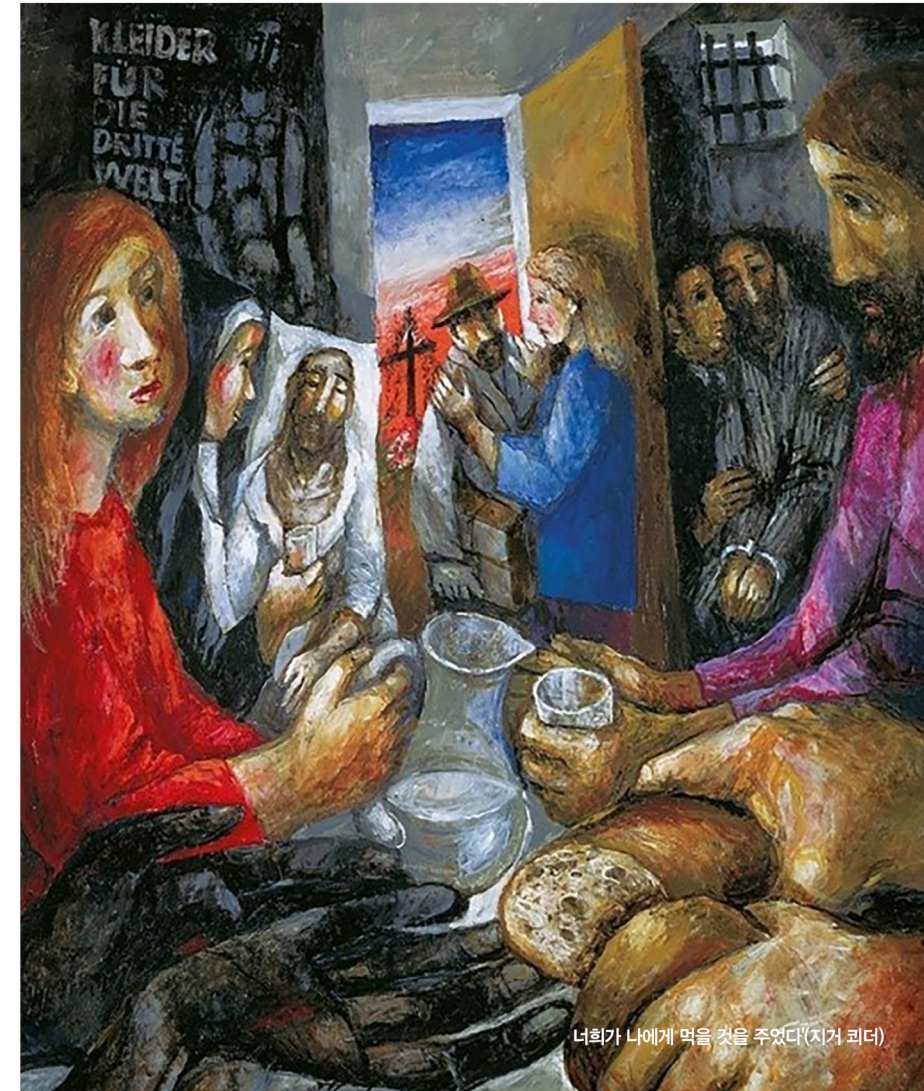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선교회	연령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본당	아브라함	남성교우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소예배실	에스터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예배실	드보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전 9시	소예배실	마리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전 9시	청소년부실	하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겨 쿼터)

제51권 31호

2025년 8월 3일(성령강림절 후 여덟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주일예배 (성령강림절 후 여덟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께
* 입례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요한계시록 4.8, 11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광송	10장(3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시편 49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사찬송	476장(3절 후, 간주)
기도	김병곤 장로
* 성경봉독	전도서 1.2(구약 947쪽)
찬양	전도서
말씀과 성례	영원과 순간 사이에서
결단의 찬송과 기도	354장(3절 후, 간주)
봉헌	함께
성도의 교제	함께
* 교제의 찬양	382장(1절)
* 축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민경오 장로

- * 8월 안내위원 : 신대심, 손양선, 박선례, 최형미
- * 8월 헌금위원 : 김인수
- * 8월 주방봉사 : 9, 6구역

생명의 말씀



전도자가 말한다.
“정녕 헛되고 정녕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2/히브리어 직역 성경)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날 연기대!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메시지성서)

기쁨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30분	인도 : 송 혁 목사
기도	이황재 집사
오늘의 찬송	133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9월 기도 - 이상철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이기도 목사
찬양	함께
기도	정회숙 권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3.11-18(신약 411쪽)
말씀선포와 기도	오른손과 이마
축도	이기도 목사

다음 주 기도 - 신은혜 집사

일상기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독서 본문	7일(목)	스가라 2.1-13
4일(월)	요한계시록 22.6-21	8일(금)	스가라 3.1-10
5일(화)	스가라 1.1-6	9일(토)	스가라 4.1-14
6일(수)	스가라 1.7-21	10일(주일)	스가라 5.1-11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난 주일 말씀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도!

(누가복음 11.1-4)



[성서일과표/호세아 1.1-11, 시편 85.1-13, 골로새서 2.6-15, 누가복음 11.1-8]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주기도와 그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6장의 그것을 동시에 붙잡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표의 열쇠 말은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용서'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의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의 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읊조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히 기도하다가도 항상 멈춰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용서에 대한 요청이지요.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에 대한 예수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무게를 이해하려면 용서에 대한 구약성서의 관점과 그 변화의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용서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먼저 죄와 용서에 대한 모세 5장의 가르침은 출애굽기 34장 6-7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용서하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삼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고백만으로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지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주로 기록된 예언서의 가르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시는 성전이 없는 시대였기에, 희생 제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죄의 용서를 위해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행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지요. 미가의 외침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말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이야,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6-8)

히브리성서의 세 번째 책인 성문서에서도 죄를 용서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용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셨다고 말이지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죄의 용서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었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성서적이며 불경한 생각으로 여겨졌 때문이지요.

예수께서 중풍 병자를 향하여,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시자,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복음서 기자들은 사람들의 충격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란 기도는 죄의 용서를 둘러싼 모든 종교적 장치-종교 권력의 핵심인 성전, 속죄 제사, 성직 제도, 고해성사 등-를 무너뜨리는 선언입니다. 또한 이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죄의 용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죄의 용서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마태복음 6.14-15)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예수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야말로 '충만'이라고 말이지요.

시편 지혜자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나,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되풀이하며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는 세상을 내다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그러하기를! 살뵈.